

일본에서 한발 앞선 육아 지원책 ~불임 치료비 지원 확충, 산후 조리 무상화,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창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이유

돗토리현은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를 개국한 이래,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셋째 자녀 보육료 무상화, 소아의료비 지원 등 일본의 육아 지원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2008년에 1.43까지 저하된 합계특수출생률이 2013년 이후 7년 연속으로 1.6대를 유지하는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희망출생률(1.95)에는 미치지 못하고 출생수가 매년 감소했다.

이에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부터 돗토리현의 육아 지원책 개선 사업을 새로 추진했다.

사업 목적

2030년 희망출생률(1.95)을 실현하고자 ‘육아 왕국 돗토리’에 어울리는 일본에서 한발 앞선 육아 지원책을 전개해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경감’을 꾀한다.

사업 개요

1 소망에 부응하는 임신·출산 응원 사업

(불임 치료비 지원의 확충)

불임 치료비 조기 개시에 대한 계기가 되고 불임증에 대한 불안, 불임검사와 관련된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 (1) 불임검사비 지원 ※검사 전액 지원은 일본 최초
결혼 3년차까지 또는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부부가 받는 보험 적용 외 검사비 전액(상한 26,000엔)을

지원

- (2) 인공수정 지원금 교부사업 ※지원액 일본 1위
35세 미만의 여성 배우자가 받는 인공수정과 관련된 비용의 70%(보험 적용과 동등한 금액까지)를 지원
- (3) 특정 불임 치료비 지원금 교부사업 ※지원액 일본 1위
특정 불임 치료(체외수정, 현미수정)에 대한 현 단독 보조를 대폭 확충
- (4) 습관성 유산 치료비 등 지원 사업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2 산후 엄마와 아기 쑥쑥 응원 사업

- (1) 산후 조리 무상화 ※개인 부담의 무상화는 일본 최초
산후우울증 및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동시에 원활한 육아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돗토리현이 협동해 산후 조리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자기부담액(이용료)을 무상화
- (2) 조산소의 시설·설비 정비를 통한 산후 조리(숙박형) 서비스의 수용 확대
침상 설비가 있는 조산소 설치에 필요한 증개축 관련 비용을 지원

3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제한이 없는’ 제도는 일본 유일
통학 비용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등에서 원하는 학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돗토리현 내 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비를

돗토리현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



불임 치료

장점과 선진성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한 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내실화를 희망하는 육아 지원책을 바탕으로 시책을 입안하고 돗토리현과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 일본에서 선구적으로 제도를 창설 및 확충했다.

사업 효과

[불임 치료비 확충]

- 검사비 지원 실적이 약 2배로 증가.
- 인공수정, 특정 불임 치료의 첫 회 지원 실적도 증가
- 검사를 통해 조기 치료로 연결

[산후 조리 무상화]

- 산후 조리 사업 이용자의 대폭 증가로 연결

[통학비 지원 사업]

-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단독사업에서 돗토리현·기초자치단체 협동사업이 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원 확충으로 이어졌다고 호평

과제, 문제점과 대응

[불임 치료비]

- 수태능력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계발해 결혼 후 조기 불임검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불임 전문 상담센터, 기초자치단체의 혼인신고 수리창구와 연계한 계발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림.

[산후 조리 사업]

- 산후 조리 사업의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 조산소와 돗토리현이 연계해 지역에서 임산부에게 안심감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

- 의료기관,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사 등에게 상담하기 힘든 경미한 불안 때문에 고립, 고독감을 느끼는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

[통학비 지원]

-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현민의 이해를 얻을 것.

資料 一

全国の一步先を行く新たな子育て支援策について

○ 本県では、平成22年の「子育て王国」建國以来、各市町村の協力の下、第三者機関の無償化や小児医療費の助成等、全国に先駆け子育て支援に取り組んできた。

○ 昨年10月から幼児教育・保育無償化で、国がようやく追いついてきたことを踏まえ、全国の一步先行く子育て支援策に、県と市町村との協働を取り組む。

1 高校生通学費助成事業
公立定額制の通学定額費を収入し、通学する生徒の通学費負担軽減に取り組む。

・2000円/月を超え部分については県と市町村で助成
・2000円/月以下部分については市町村が助成する
※計画的に無償化する高層の学校で学ぶ

＜イメージ＞
毎月1000円がかった通学費が2000円に
毎月500円がかった通学費が1000円に
※市町村「うち」で負担する通学費は異なるので、状況に応じて柔軟に対応
県と市町村で共同助成
※市町村助成の1/4程度が負担

2 産後ママと赤ちゃんすくすく応援事業
産後ケア受給者を支援するため、経済的負担を受けやすい産後ケアを支援

(1)産後ケア無償化事業
市町村が認定した産後ケア利用料個人負担を助成する
【事業費】県/2、市町村/2
個人負担なし
県と市町村で協力して個人負担を無償化
※市町村に比べてはるかに少ないけれど、負担が軽減し、経済的負担を減らす

(2)助産所施設・設備整備事業
産後ケアの提供拡大のため、産後ケア施設や設備に関する経費を補助する
ケア施設が不足せず
ケア施設が不足し、ケアが受けられない
ケアが受けやすい

통학비 지원, 산후 조리 무상화

향후 전개(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전망, 과제 등)

[불임 치료비 확충]

- 정부의 동향(보험 적용)을 주시해 더 내실화된 제도가 되도록 검토해 나간다.

[산후 조리 무상화]

- 산후 조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 산후 조리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불안을 느끼는 임산부가 조산사에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마음의 휴식(한숨 돌리기) 장소를 각 지역에 설치.
- 지역 내 의지할 수 있는 장소(자주 찾는 조산소)가 되도록 조산소의 역할을 향상.

[통학비 지원]

- 일본의 선구적인 육아 지원책이라고 PR해 돗토리현 외부에 거주하는 육아 세대의 이주 촉진으로 연결한다.

[육아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향후 전개]

- ‘돗토리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돗토리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육아 왕국 돗토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육아 지원책을 내실화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참고 URL

[산후 조리 무상화] 산전·산후 조리에 관한 설문조사보고서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787368/sannzennsanngohoukokusyo.pdf>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돗토리현청 육아·인재국
육아왕국과

전화번호: +81-857-26-7148

이메일: kosodate@pref.tottori.lg.jp

사용한 전문용어, 조어의 의미